

투데이 칼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당근 보따리를 쟁겨 북한 체제를 보



정복구 통일교육원

향변도 비핵화 담판은 향후 북한 체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다. 김정은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9년 동안 핵과 미사일

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았다.

집권 첫해인 2012년 7월 부인 이설주를 대동하고 관광할 모란봉 악단 창단 공연 무대에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같은 미 윌트디즈니의 캐릭터가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듬해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하는 등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김정은도 민생 쟁기기와 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제시했다. 집권 100일을 갖

광장에서 한 첫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노동당이 통제하는 공장·기업소 등 경제 단위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6·28 개혁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말엔 노동당 전원 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미·러 김일성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지상 낙원'은 공수포가 됐다. 현실은 차가

에 무게가 실린 병진노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해상에서 은밀하게 벌여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북한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르면 16% 수준의 국방비 비중은 병진노선 제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결국 5년 만에 경제·핵 병진노선의 포기를 선언하고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다는 건 체제의 명운을 건 모험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당한 지 7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실제 이행하느냐에 달렸다.

한·미·러 김일성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지상 낙원'은 공수포가 됐다. 현실은 차가

사설

억울한 옥살이 20년 만에 국가 배상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뒤집어쓴 살인 누명, 그리고 10년이나 견뎌야했던 억울한 옥살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올해 37세인 최 모 씨가 사건에 휘말린 건 지난 2000년 8월이다. 습진 택시 기사를 발견한 당시 최 군을 경찰은 폭행과 고문을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다.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정춘을 보냈다.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최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배상의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고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8억 원가량을 공제한 13

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당시 경찰관 이 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다른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심이 시작되자 그는 아내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재심 중인 출석 후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최 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등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위법 수사를 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 역시 불합리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보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고통이 은연치 않게 유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잊어서는 안 된다.

점수 미달인 도내 공립미술관

전북 도내 공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공립미술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기 위한 평가인증에 나섰다. 그러나 전북 도내에서는 전

이름을 따서 개관했다. 이곳도 역시 학예사가 한 명 뿐이어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장한 작품은 5점뿐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과 무주 최북미술관 등은 점수가 미달에 달랐다. 3곳 가운데 2곳이 점수 미달로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평가인증은 2017년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평가했다. 조직과 인력·시설 자료 수집·전시실적 등을 위주로 평가한다.

현재 전북에는 공립미술관이 2006년 설립한 전북도립미술관을 비롯 무주최북미술관(2014년),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2015년), 정읍시립미술관(2017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2018년), 김제벽천미술관(2019년) 등 7곳이다.

전북도는 차기 평가 대상으로 정읍시립미술관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김제벽천미술관 등 3곳의 평가를 준비 중이다. 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의 경우 400억 원을 들여 설립했다. 그러나 전시 기획과 미술품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가 단 1명뿐이다.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과 예산도 크게 부족해 보조금 없이는 전시조차 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주최북미술관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꼽히는 최북의

미술관 역시 이에 부응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미술관들은 인증 기준에 맞추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전북도에서도 각 시군에 정부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공립 미술관들이 모두 인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헝가리, 코로나19 '더는 못 참겠다'



1월 3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코로나19 제재 합의 시위가 열려 한 시위 조직위 관계자가 경찰 뒤에서 검문 받고 있다. 시위대는 근 3개월에 달하는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 제한뿐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쇼핑물이나 소매점 등은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코로나19 제재 종단을 요구하고 있다.

힘차게 썰매 끄는 썰매견들



1월 31일(현지시간) 미 미니소타주 델루스에서 존 베어그리드 개 썰매 대회가 열려 참가 썰매견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출발 지점이나 중간 기착점 등에 관중이 허용되지 않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